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2025년 2월 15일 초판 발행

펴낸이 강요섭 김광욱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교정 김미선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요엘



## 차례

요엘 1:1-20

요엘 2:1-17

요엘 2:18-32

요엘 3:1-21



묵상한 날 :

1

##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1:1-20

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4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도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굵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8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0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도 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

제사장들이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너희는 와서 굶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의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18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핏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성경 요엘을 소개합니다.

① 요엘의 뜻 :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요엘의 이름 속에 내포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② 핵심단어 : 여호와와 날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와와 날’은 이스라엘



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이며 보상의 날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당대에 유다가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메뚜기 재앙)을 통해 비록 주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경우, 두려움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함으로 장래에 임할 궁극적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며 신앙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을 미리 경험케 하심으로 회개를 통해 향후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③ 특징 : 요엘의 예언은 개인의 경험이나 환상 대신 자연 재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선지서의 경우, 선지자 개인의 경험이나 환상을 바탕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바탕으로 예언합니다.

#### ④ 구성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메뚜기 재앙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내용인 1장 1절-2장 17절과 2) 회개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약

속에 대한 내용인 2장 18절-3장 21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1장은 1) 책 제목에 대한 설명인 1절과 2) 여호와와 날의 예시로 주어진 메뚜기 재앙을 통한 경고를 다루는 2-4절까지의 내용, 3)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빚어지는 참상 및 회개 성회를 촉구하고 있는 5-14절, 4) 궁극적인 여호와와 날에 대한 탄식과 간구의 내용인 15-20절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1)

(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요엘의 예언 선포 시기는 남유다의 제 8대 왕이었던 요아스(B.C. 835~796)의 통치 초기로 여겨집니다. 당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 100여 년 정도 지난 시기로 두 왕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종교적으로 두 왕국 모두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엘서의 표제인 1절에는 요엘의 아버지인 브두엘이 언급됩니다.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지

어준 요엘의 아버지 ‘브두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들에 담긴 의미를 통해 우리는 요엘의 아버지인 브두엘과 브두엘의 아버지인 요엘의 조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커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적인 열망을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닌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냥 계승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갈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대에서 믿음이 끊긴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요엘의 아버지인 브두엘과 브두엘의 아버지인 요엘의 조부는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는 아주 미미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요엘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요엘에게 잘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승계받은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 메뚜기 재앙을 통한 경고(2-4)

이제 본문 2-4절까지는 당면하고 있는 재앙을 통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먼저 늙은 자들, 곧 나이든 노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중에 최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 비견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충격적이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은 나이든 노인들에게 현재의 재앙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한 후세에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잊혀서는 안 되며 그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후손들이 반복해서 그런 재앙을 겪지 말게 하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계승을 위해서는 이처럼 후세를 교훈하여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항상 바른 삶으로 본을 보이며

진면교사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비록 부끄러운 고백일지라도 그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그들이 경각심을 갖고 바른 신앙적 삶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면교사적인 인물들과 반면교사적인 인물들이 총망라된 인생 표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되는 불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징벌받았던 가여운 인생 또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을 통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자녀와 후손들을 교훈하여 세워 나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4)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팔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4개의 히브리어를 우리 말로 옮긴 것으로, 이 단

어들이 각각 다른 4종류의 메뚜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의 4단계 변태 과정 중에 있는 메뚜기의 유충과 성충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메뚜기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참상과 회개 성회의 개최 촉구(5-14)

5-14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으로 야기된 참상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성회를 개최하라는 촉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7)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끓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강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이든 노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요엘은 이제 ‘취하는 자들’ 곧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술 공급이 끊기게 된 것을 슬퍼하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포도나무는 물론이거니와 무화과나무 또한 초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인 포도나무가 망가지고 무화과나무는 전부 값아 먹혀서 하얗게 죽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요엘서에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요아스 왕 재위 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저주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행로에는 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는 복된 길을 걷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께 징벌받는 고통의 길로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당면한 심각한 재앙 앞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슬퍼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이다

마치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될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슬프게 곡하라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남자를 잃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엄청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10)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메뚜기 떼로 인해 곡식이 죽게 되고 포도나무 또한 망가져 버리자 그 일을 담당하며 백성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던 제사장 또한 생활이 궁핍해져 탄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곡물 제사였던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 드리던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점차 영향을 미치며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야 마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살전 5:22).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죄로 인해 야기된 죽음과도 같은 재앙 앞에 요엘은 제사장  
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하사 재앙을 유보해 주  
셨습니다(왕상 21:17-29).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참회의 마음을 담  
은 금식과 중심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런 모습과 기도는 하나님  
께 곧바로 상달되고 그를 통해 죽음과도 같은 징계의 자리는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탄식과 간구(15-20)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에 대한 탄식과 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와 날’이 곧 도래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와 날’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20절까지 묘사된 바에 의하면 ‘여호와와 날’은 한마디로 ‘파멸의 날’입니다. 성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고(16절), 사람들의 궁핍함은 극에 달하며(17절), 가축들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혹독한 고통의 날(18절)입니다.

그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요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9a)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요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적 재앙이기에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참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화된 심령을 지니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한적한 곳, 갯세마

네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은혜  
를 경험하며 우리에게도 임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적한 겹세마네의 기도 처  
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다가올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해 가시  
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  
립니다.

##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책무는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말씀으로 후손들을 교훈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재앙과도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지라도 참회의 마음을 담은 금식과 중심을 담은 기도를 통해 징계의 자리가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한적한 갯세마네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도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받아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요엘서 1장 1절에 기록된 후 다시는 성경에 거론되지 않는 미약한 자 브두엘, 그럼에도 그의 아들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니까?
2. 요엘 선지자는 나이든 노인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위해 후세를 교훈하며 세워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 죄로 인한 징벌적 재앙에 대해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1:14)
4. 여호와의 날은 개인적인 종말(죽음)과 우주적인 종말(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어떤 결단과 실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1-17

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니 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6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낮빛이 하얗졌도다 7 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12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 메뚜기 떼의 침입(1-11)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의 군대가 몰려올 것을 말하며, 그날이 여호와와의 날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본문 1-11절이 메뚜기 떼의 침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a)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중동에서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집회로 모일 때와 성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행사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에게 알리는 축하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와 같이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 성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분 이유는 ‘여호와와 날’이 임했음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와 날’이 있음을 각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날, 구원의 날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절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3)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니 그들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흰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며 갑자기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먹구름  
이 몰려와서 캄캄해진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몰려와 태양을  
가려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가 지  
나가고 나면, 몰려오기 전에는 ‘에덴동산’ 같았던 땅이 몰려가고  
나면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동산’이 ‘없  
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황폐한 들’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메뚜  
기 떼가 몰려오는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메뚜기 떼가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며,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 같이 여겨  
지곤 합니다. 계속해서 메뚜기 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5)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의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몰려오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마치 그 모습이  
말과 기병, 병거와 같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나중  
에 유다를 침략해 올 바벨론 제국의 군대 모습이 메뚜기 떼의  
모습과 흡사할 것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병거(탱크)를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  
니다. 유다는 거의 병거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의 병거가 몰려올 때 공포심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  
다. 그것은 마치 우리 군은 소총이 전부인데, 적군의 전차(탱크)  
가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 것입니다.

(7-9) 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바닷속의 정어리나 청어, 고등어, 멸치 등은 군영(群泳,  
schooling),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 수효가 수만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나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녀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공중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박쥐 떼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어둠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도 수천 마리의 박쥐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곤충들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메뚜기와 같이 작은 곤충이 한 도시에 몰려오면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날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틈만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올 때 성벽도 단숨에 점령하고, 무기고도 단숨에 무력화시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살육을 자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0-11)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모두 천재지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 재앙으로 표현되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들도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충격적인 것은 유다를 침략해 오는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하여 앞장서서 지휘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와 의 날’입니다.

### 회개의 촉구(12-17)

세 장으로 구성된 요엘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후반부는 2:18-3:21인데, 여호와와 의 날에 있을 구원과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 1:1-2:17은 여호와와 의 날에 있을 심판과 징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17절은 전반부의 결론인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공물을 호소하라고 말씀합니다.

(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가 뒤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전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지 않은 행동은 외식이 되기 쉽고, 이내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쉽습니다.

둘째는 ‘금식하고’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참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나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는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금식입니다.

셋째는 ‘울며’입니다. 이 단어는 ‘큰소리를 내며, 눈물을 펄펄 쏟아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누르다 터는 견디지 못하고 터트린 방성대곡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울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입니다.

넷째는 ‘애통하고’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슬픔으로 인해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

난날의 잘못된 삶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찢어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효입니다. 둘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나 자기 욕망에게로 돌아가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아가도 돌아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음만 못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앞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돌아가는 것과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17)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의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절에서는 나팔을 부는 것이 경고와 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을 촉구하는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정한 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금식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한 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국가라기보다 교회가 더 적절합니다.

이 성회에는 장로(늙은 사람들)부터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모두 동참하라고 합니다. 즉 100살부터 1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군대에 소집되는 것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방

에서 나오라는 것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장소가 ‘낭실(성전 동쪽 현관)’과 ‘제단(번제단)’ 사이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늘 기도드리던 곳입니다. 거기서 울며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핀 것처럼 요엘의 주제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예기치 않은 사고 등과 같은 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날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을 통해서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은 그동안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서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여러 경고등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를 통해서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과도하게 낭비했거나 더 많은 것을 움켜쥐겠다고 과도하게 투자(투기)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실직, 부도 등의 날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금이 가는 상황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길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의 겿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이 상급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겿세마네를 찾아 그 얼굴을 땅에 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의 통로로 사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뚜기 때가 몰려오면 그것들은 성벽도 쉽게 넘고, 무기고에도 쉽게 들어가고, 집안으로 드나드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듯이, 장차 이방인의 군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도 매 주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만,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옵나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겹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매뚜기 떼가 침입하는 때를 통해서 ‘여호와와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삶 가운데 자연현상이나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적은 없습니까?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 자신의 겹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 2:18-32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흠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으로다 22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18-27)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때’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울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17절)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회개는 반복하고 있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켜져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23-24)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음을 찢으며 돌이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을  
비)와 늦은 비(봄비)를 내려주십니다. 닫혀 있던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립니다. 수확이 풍성해집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  
을 찬송하게 됩니다(26절). “너희는 눈물로 애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라!”(12-17절) 한 명령에서, 이제는 “너희는 기뻐하며 즐  
거워할지어다!”(21-27절)의 선포로 대반전입니다. 그 대반전 사  
이에는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그 회심의 과정에서, 다시 말  
해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통회로 인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이  
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절절하게 배워갑니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  
무것도, 그 누구도 내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  
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28-32)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만민’으로 번역된 ‘콜-바사르’는 문자적으로 ‘모든 육체’를 뜻합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연약성/무력성’과 ‘영의 강력함/생명력’이 대조가 됩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 ‘젊은 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예언, 꿈, 환상’은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의평행법적 표현구(같은 뜻을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 부음을 받아 다시 살아나(겔 37장),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모세의 간절한 소망의 실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29b)

(31-32)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원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 31-32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날이며,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의 대반전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여기서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회개(12-14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응답해주신 결과입니다(18절). 즉 백성의 회개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엄청난 재난이 닥칩니다.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합니다(30절). ‘피’는 사람들의 죽음, ‘불’은 도시의 불길, ‘연기 기둥’은 참혹한 전쟁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재난을 가리킵니다. 하



늘에서는 ‘해와 달이 핏빛 같이 변합니다(31절).’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재앙의 징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여호와의 날’, 곧 구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에 불과합니다(30절). 이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32절)’.

구원이 절박한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뿐임을 깨닫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믿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사람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만의 겹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큰일을 행하십니까?
2. 하나님은 왜 남녀노소 불문하고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3.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3:1-21

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 오게 할 그 때에 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흠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5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6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7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 사면의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와 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

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14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 ‘여호와와 날’이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와 날’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와 날’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즉 예언에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성취된 것으로 그

예언이 종결되지 않고 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겪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하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이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곤충 재앙’으로 임했고, 다음으로는 상징적 의미의 결과인 ‘바벨론 침공’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할 중의적 의미의 ‘메뚜기 재앙’, 즉 ‘여호와의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서는 12소선지서의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요엘 선지서가 12소선지서 중 앞쪽에 위치한 것은 예언 활동 시기가 제일 앞서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가 제일 앞선다는 주장이 있고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현재 성경 소선지서의 기본적인 배열순서는 예언 활동 시기별(3시기)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순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원칙을 따릅니다. 대선지서가 소선지서 앞에 위치한 것은 큰 분량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모두 포함해서 요엘 선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멸망 이전 시기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 포로 후 시기의 5세기 말라기 시대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구원과 회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날’을 선포하셨기에 당시 듣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시간에 요엘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며 설교했습니다. 이때는 모인 무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 한 번으로 그쳤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 어두운 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메뚜기 재앙, ‘여호와와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1-13)

요엘 3장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갈 것을 전제하며 하시는 말씀이고, 사로잡힌 자가 영원히 포로로 남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올 것은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중의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회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를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슬에 속박되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흠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분열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데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가셔서 하실 일이 1차적으로 심문이라고 합니다. 만국의 죄는 이스라엘을 흠게 했던 일과 인신매매를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 취급하듯 매매하는 행위 등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들에 의해 속박당한 사람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4-6)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4절에는 만국 중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갈 나라 두로, 시돈,

블레셋을 언급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심판의 불가피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보복하시겠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은과 금과 진기한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챙기면 챙길수록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궁핍해질 것입니다. 6절은 3절처럼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7-8)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은 인신매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말씀하시고  
8절은 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을 인신매매했듯이 그 보응으로  
세 나라의 후손이 인신매매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중죄에 대해서만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의 첫 번째 ‘너희는’은 명확히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여호사밧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로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용사를 격려하며 전쟁의 사기를 북돋우고, 10절을 보면 농기구 보습과 낫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 전쟁 준비에 힘을 다하고, 약한 자가 스스로 강하다는 최면을 걸어 정신무장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허사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13절에는 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것과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십니다.

9-13절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의 골짜기로 소집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판의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 추수 때 가라지는 뽑혀 불살라질 것과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그때가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판의 날, 추수 때가 오더라도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형벌의 심판 날이지만 주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 그의 백성의 피난처(14-21)

(14-15)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4절 역시 심판의 임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임박이란 여호와와 날이 내일이라도 당장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날에 여호와와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15절은 그때 일어날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질 날을 말씀하셨습니다(마 24:29).

16-21절까지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16b)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17b)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에는 산과 시내에는 포도주와 젖과 물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합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언어의 칼로 피흘림을 당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거나 다른 이유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갱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가기 전까지 자신의 겹세마네 동산을 찾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뚜기 재앙으로 죽어야 할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되기 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 권리와 소유물을 빼앗기고, 물건 취급을 당하여 마음의 피흘림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겹세마네를 찾아가 하나님께 얹드려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호와와의 날’에 대하여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2. 여호사밧 골짜기의 뜻은 무엇이며, 왜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소집하십니까?
3.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민족이 소집되는 데 예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이스라엘 주변국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일로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의한 괴로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아모스



## 차례

아모스 1:1-15

아모스 2:1-16

아모스 3:1-15

아모스 4:1-13

아모스 5:1-27

아모스 6:1-14

아모스 7:1-17

아모스 8:1-14

아모스 9:1-15



##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1:1-15

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4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5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벵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7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8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

독에 넘겼음이라 10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궐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12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14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 아모스의 소명(1-2)

‘아모스’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선언하라는 말씀의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중 그 선지자가 활

동했던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것이 6권(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말라기) 있고, 밝히는 것이 6권 있습니다. 밝히는 것 중에서 학개와 스가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무너지고 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미가와 스바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에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고 있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에서 ‘말씀이라’가 맨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10대 임금 ‘웃시아(B.C. 791-739)’였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므낫세(55년 통치)를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을 점령했고, 에돔의 ‘구르바알’도 차지했습니다. 구르바알을 에돔의 수도 ‘페트라’로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13대 임금 ‘여로보암2세(B.C. 793-753)’였습니다. 그는 41년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는 므낫세와 웃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통치이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긴 기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신흥 제국 아시리아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남쪽으로는 염해(사해)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강성해 있을 때는 이때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 사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올바르게 못한 세금제도로 가난한 사람을 더욱 착취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핵심구절이 5장 24절인데,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정의(하나님의 바르게 행하심을 받아들여,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도 없었고, 공의(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무 데도 기밀대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긍휼)도 없는 불의와 우상숭배만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출신지와 직업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고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말씀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이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말로 목자들을 뜻하는 보편적인 말은 ‘로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번은 ‘모압왕 메사’를 지칭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가난한 목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지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즉, 목자라기보다 목축업자에 가깝습니다. 또한 7장에서 아모스는 자신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도 아니었고, 선지자 학교(신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터전이 됩니다. 삶의 자리를 떠난 부르심은 없습니다.

(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고 선언합니다. ‘부르짖다’는 성경에서 주로 사자가 포효할 때, 특히 먹잇감을 공격하거나, 싸울 상대 앞에서 으르렁거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소리를 내다’는 ‘천둥번개가 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의 초장에서 갈멜산 꼭대기까지’ 마른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말 ‘한라에서 백두까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심각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가나안 땅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3-15)

1:3-2:16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6개국 등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예언입니다. 그 중 3-15절은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8개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며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②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며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③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라며 심판의 형태를 밝힙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④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며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네 가지 형식을 기본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시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굶으며 벵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굶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고대의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만 지어도 한 도시나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나 ‘서너 가지’는 ‘3이나 4’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많음’

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3과 4를 더하면 7인데, 7은 완전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호아하스 왕 때에 아람(시리아)이 보병 일만 명과 마병과 병거(탱크)를 몰고 와 침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와 접한 곳에 위치한 블레셋은 도시들이 연합하며 만든 국가인데, 그 중 대표적인 도시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잡은 사람들을 인신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단지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포로를 노예로

파는 일은 고대에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에돔에 고의로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사에 불을 보내어서 궁궐을 사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패전하여서 궁궐이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쟁포로를 무자비하게 잡아 넘겼으니,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아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와 접한 곳에 위치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발달한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두로 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참칭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혈맹관계, 형제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내 형제여”라고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인접한 도시 시돈 출신의 여인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여 두로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더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에돔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었고, 다윗 왕도 소금골 짜기(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의 편에서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은 미래의 시점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1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둘째 딸과 관계해서 태어난 아들(벤암미)의 후손이 세운 나

라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이런 만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하고, 상상으로도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암몬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핀 다섯 나라, 아람(다메섹), 블레셋(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베니게(두로), 에돔,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지진 2년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국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당돌하고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물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신의 기도자리, 겹세마네를 갖는 것은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가장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외적으로는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고 없었고, 사회정의도 짓밟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소명지에서 소명을 따라서 사는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아모스 선지자는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2. 아모스 선지자는 나라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을 때 지진이 있을 것과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세상적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는 침체되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3.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돌이켜야 할, 당신에게 있는 ‘서너 가지 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4.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서너 가지 죄

아모스 2:1-16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2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별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9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2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 활을 가진 자도 쉴 수 없으며 말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1-3)

본문은 앞선 1장에서 기록된 가나안의 주변국(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의 연속으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가나안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과 동일한 형태로 모압의 심판 역시 민족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았고, 이에 대한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모압 심판의 구체적 이유로 이웃나라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재로 번역된 원어 גֶּשֶׁם(시드)는 석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데, 영어 역본들(NIV, NASB, KJV)은 이것을 석회(lim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모압은 에돔 왕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그것을 태워 만든 재를 벽에 바르는 석회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극악무도한 행악은 심판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2-3)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 생동감 있게 기록합니다. 먼저는 시각적으로 수도인 그리옷이 불타버릴 것, 이어 청각적으로 전쟁과 혼란의 소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주 대상이 민족의 지도자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주변 6개국의 심판 예언을 마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을 시작합니다.

##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4-5)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주변국의 심판 예언과 같은 형식으로, 먼저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유다의 심판 예언이 여호와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 그들이 범한 독립적인 범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둘째로 그의 조상들과 같이 거짓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용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을 향한 심판의 척도는 이방 나라들과 달리 철저히 율법에 근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멸시하여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과 같이 우상에 미혹된 선민 유다에게 이어질 심판의 형태는 이방 심판의 형태(5절-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모스의 주 활동 무대였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이 이어집니다.

##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6-16)

(6-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주변국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 때와 같은 형식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이 여호와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 그들이 범한 독립적인 범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은을 얻기 위해, 신 한 켤레 값에 팔았습니다. 금전취득을 위해 인신매매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연약한 이들을 악한 길로 몰아세웠습니다.

셋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어린 소녀와 성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두고 가정에 고용된 어린 소녀가 그 주인과 주인의 아들에 의해 성적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피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옷을 전당 잡은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율법의 가르침(출 22:26-27)과 밤새 추위에 떨며 고통 속에 있을 동족들에게는 무관심한 채, 우상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나실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미혹하고 탄압했습니다(11-12절). 이처럼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죄악을 지적하는 부분을 통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가진 기득권층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범죄의 내용과 심판의 형태 순으로 기록했던 앞선 구조와는 달리, 이어질 심판의 형태에 대한 기록에 앞서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9-10)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의 인칭과 수를 포함하기에 주어에 대한 표기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럼에도 9절과 10절 원문에는 반복해서 1인칭 단수 대명사 ‘내가’(אני-아노키)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과거 경험한 가나안 정복과 출애굽 사건에서 결과로 주어진 승리와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허락한 주체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보다 극심한 범죄를 일삼은 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심판은 불가피했고, 심판의 형태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13)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을 비유로 제시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흙을 누름’으로 번역된  $\text{תָּנִיק}$ (타이크)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짐에 짓눌림’으로 번역합니다.

(13, 새번역)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일부 영어 역본(NLT, NEB)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자는 이스라엘을 흙에 비유한 개역개정보다 수레에 비유한 새번역이 좀 더 적절함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번역에 있어 의견이 나뉘는 용어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절 가장 앞에 명시된 주어입니다.

원문은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을 요청하는 감탄사 הנה(히네)에 이어, 1인칭 단수 대명사 ‘내가’ אנכי(아노키)로 시작됩니다. 앞서 과거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와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함과 같이, 미래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 역시 여호와께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피조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14-16절).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주변국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주체와 심판의 이유, 심판의 형태의 순으로 일정한 형식을 반복하여 이스라엘 주변 모든(총 8개) 나라에 심판이 예고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언된 심판은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 삶의 반복되는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우리의 중심에서 그것들을 이제는 뽑아냅니다.

어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일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 겹세마네를 찾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 양화진 언덕을 찾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치참한 실상을 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처럼 느껴져 무거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심판이 예고된 오늘이 아닌, 구원이 예정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이곳 양화진 언덕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며,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을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전하는 아모스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2. 동족의 심판 예언을 전하는 아모스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3. 우리 삶의 반복되는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4. 과거 경험했던 은혜의 사건들을 숙고해 봅시다.

## 심판의 이유

아모스 3:1-15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  
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  
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  
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4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  
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  
덧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덧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6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  
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  
하겠느냐 9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  
이 있나 보라 하라 10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  
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  
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

상 모서리에나 절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13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14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엘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15 겨울 궁과 여름 궁  
 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2장에 이어 3장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  
 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예언의  
 정당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1-2)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  
 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너희에 대하여’로 번역된 원어 ‘알레캄’은 ‘너희를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너희에게 내리  
 는 심판의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권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  
 의 말씀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

까? 혹시 가벼운 권면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고 계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알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다’인데, 이는 단순히 지적인 앎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적인 앎 또 친밀한 관계를 통한 체험적인 앎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큰지 계속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임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부담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

라엘 백성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그 길을 벗어나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쫓는 그 길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때론 욕심으로 현재의 삶을 채우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예언의 정당성(3-8)

3-8절은 예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차 대구 구조를 사용하여 좀 더 생동감 있게 심판의 긴장감과 예언의 정당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와 8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두 사람’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두 사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문장의 의미는 서로 목적지가 다르고서는 동행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두 사람’을 하나님과 아모스로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

겠느냐는 말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과 같습니다. 아모스 본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모두 하나님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와 8절 상반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구절도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 구절 다 ‘사자의 부르짖음’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먹이를 움켜쥐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심판의 대상이 있기에 그 대상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아모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는 사자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역시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땃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와 6절 상반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가 대구 되어 있고, 5절 하반절 ‘잡힌 것이 없는데 땃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와 6절 하반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가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땃은 죄로 인한 심판, 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죄에 대한 처벌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돌이키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 심판의 이유와 결과(9-15)

이제 9-15절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상, 특히 왕과 위정자 등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죄악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10)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검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스돗과 애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였는데, 이미 1장에서 심판을 받게 될 곳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 역시 만만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죄,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큰 요란함과 확대함, 포학, 겁탈’이라는 이 네 단어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요란함은 혼란, 무질서입니다. 권력과 부가 곧 법이고 질서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과 강탈을 일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쌓은 권력과 부는 많은 악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눈물과 탄식, 고통, 심지어 목숨까지도 축적한 것입니다. 무법천지와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10절 말씀처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에 맞서 나갈 때, 주님 안에서 바른 질서가 내면에 세워질 것이고, 그 질서 아래 욕심을 절제해 가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11-15절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악상에 관한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11-1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결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벤엘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먼저 사면에서 대적이 일어나 이 나라를 포위하고 요새들을 약탈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다 사자에게 잡아 먹고 겨우 두 다리와 귀 한 조각 남아 있는 양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세가 될 것이라 합니다. 또 대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남겨진 침상 모서리와 결상의 방석과 같은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세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벤엘의 제단을 다 꺾어버리실 것이고, 사마리아의 왕이나 귀족 계층의 부정과 사치, 허영을 잘 드러내는 상아궁을 다 파괴할 것이라 합니다. 즉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심판에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도 늘 잊지 말아야 하지만,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와 맞서 잘 싸워가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탐심이나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죄와 맞서 잘 싸워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늘 마음으로 읽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우리 옆에 붙여주신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 나는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까?
3. 신앙은 죄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4. 심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4:1-13

1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2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3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너희는 벵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5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7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8 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갑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  
 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  
 와의 말씀이니라 11 내가 너희 중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  
 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  
 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  
 하라 13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  
 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 바산 암소의 죄(1-5)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된 아모스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3-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  
 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7-9장은 다섯 가지의 환상  
 과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대상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 보기에조차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

니다.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짓 눌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1-5절은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사회적 악행(惡行)과 신앙적 우행(愚行)\_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1절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말을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지금 전하는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 자리를 정리하고, 입었던 옷과 신었던 양말은 아무 곳에 던지지 말고 빨래통에 넣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다 등입니다. 그러나 거의 듣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합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체

로 해발 500-700m에 이르는 고원지대인데,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야르묵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목초도 많아서 유명한 목장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계화된 농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소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소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길렀기 때문에 소들이 아주 살지고,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암소는 최상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힘없는 자’는 세금도 낼 수 없는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나 정복자들이 정복지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데려가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여,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삶은 감자 으깨듯이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이 자기 가장(남편)에게 술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암소와 가장(남편)’은 ‘아내와 남편’으로 보아 부부가 각종 연회(파티)를 즐기며, 술이 주는 쾌락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암소와 가장’을 ‘신하와 임금’으로 보아 타락한 특권층이 임금과 결탁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과도하게 굶어모은 재물로 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에도 여인의 믿음과 생각과 삶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가정의 총연합인 한 국가(國家)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도 그 역할이 지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특히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몹시도 탐욕적이었고, 쾌락적이었으며, 불신앙적이었습니다.

(2)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합니다. 맹세는 본래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심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억압하던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갈고리(meat hook)에 걸린 고기와 낚시(fish hook)에 걸린 물고기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패전하면 백성들의 입술 부위에 갈고리를 꿰어 밧줄로 연결하여 끌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3)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각기\_한 사람씩’ 일렬로 끌려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정육점 냉동고 천장에 달린 고깃덩어리나 줄에 한 줄로 꿰뚫어 물고기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폐허가 된 사마리아성을 밟고 나가며,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형벌의 장소인 ‘하르몬’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4-5) 너희는 베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베엘\_하나님의 집’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자,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또 ‘길갈\_굴러가다’는 이스라엘 자손

들이 출애굽 후,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여리고 동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베풀게 하셨는데,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이 두 곳을 언급하는 것은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짐승을 드린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성막(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십일조 중에서 매 3년째의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두 번째 십일조를 3일마다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 제사입니다. 수은제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하는데 넣었고, 낙헌제를 드리면서는 자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종교의 형식은 풍성했는데, 신앙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로 돌아오라(6-13)

6-13절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게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 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홍년의 재앙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_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먹으면 치아에 음식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7-8)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기근의 재앙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_하나님이’입니다.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멈추었다’가 초점이 아니라 비가 멈추는 것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지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국토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기에는 전 지역에 함께 비가 오는데, 이웃한 어떤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니다. 추수 3달 전인 이때는 우기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곡식이 여무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니다.

(9)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꺾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병충해 재앙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동풍이라 불림), 시로코(sirocco)인데 이 바람이 불면 농작물이 말라서 죽었습니다. ‘꺾부기’도 식물을 말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팔중이’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아나는 식물이 없었습니다.

(10)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전염병(질병)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 5

번째가 전염병(돌림병)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1) 내가 너희 중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뺀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지진 재앙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2세 때 있었던 지진 2년 전에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지진으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붙는 데서 꺼낸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2-1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이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최후통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심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흉년 재앙, 기근 재앙, 병충해 재앙, 전염병 재앙, 지진 재앙을 말씀하실 때 후렴구처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곡히 원하시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염소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양과 같이 겸손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줄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특권층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일을 많이도 했습니다. 또한 베엘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렸지만 전부 형식뿐이었고, 그 중심은 조금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형식과 더불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만하여 염소처럼 살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양과 같이 사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산의 암소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막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바산의 암소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2.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종교활동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5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4. 형식의 종교인이 아니라 내용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5

##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5:1-27

1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2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 여호와께  
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  
리하면 살리라 5 베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  
라 하셨나니 6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7 정의를 쓴 쭉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  
름은 여호와시니라 9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0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  
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  
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  
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  
 울하게 하는 자로다 13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4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6 그  
 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  
 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18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  
 찌하여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 19 마  
 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  
 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 여호와와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  
 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21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  
 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  
 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  
 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  
 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5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6 너희가 너희 왕 식국  
 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7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1-3)

아모스 3-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로 시작됩니다. ‘애가’는 ‘장송곡이나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부른 노래’, ‘애도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1-2)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말하며 지금 전할 내용이 심각한 내용임을 말합니다. 아모스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선포하는데, ‘엎드러졌다’는 ‘던져지다’, ‘내팽개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순결하게 자라 온 처녀가 던져지고, 버림을 받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것(4-15)

4-15절은 버림받게 될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5-6)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벤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벤엘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  
(聖所)’라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 중 브엘세바는 ‘일곱 우  
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으며 아브라함 시대부터 특별  
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성소입니다(창 21:4-19, 26:23-25). 이  
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맞춰서 성소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났  
습니다. 성소를 방문함으로 자신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이 아닌  
종교의 행위만 남아 성소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  
고, 이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  
십니다. 우리 삶에도 종교의 행위만 남아 있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없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기  
억해야 합니다. ‘찾으라’는 ‘자주 가다’, ‘묻다’, ‘요구하다’의 뜻  
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 즉 ‘기도’를 의  
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간다면 그것은 절기 때만 성소를 방문하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한다면 매일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7) 정의를 쓴 썩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를 쓴 썩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공의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정의는 ‘진실되게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사회에 공정하고, 진실된 관계들이 쓴 썩으로 변하고, 땅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신뢰와 공정한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11)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밭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부조리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여도 거주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더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조리한 행위가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만함이 가득하여 부당한 세를 거두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14-15)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혹시 요셉의 남은 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고 말

씀하시며 아직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16-27)

16-2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18-19)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을 바로 잡으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둡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사 13:6-16), 두려움이 임하  
는 날입니다(말 4:5).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빛이라고 생각  
하여 구원과 위로를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집  
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리듯이 피할 수 없는 날  
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악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하  
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에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어저 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화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실 것이고,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형식적이거나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의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였기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24절이 증거합니다.

(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였고, 오히려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온갖 부조리와 편견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없던 이스라엘을 정의가 물과 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 찾기를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종교의 열심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짓된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신앙이 아닌 삶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이스라엘은 정의를 쓴 썩으로, 공의를 땅에 버렸습니다. 내 삶에서 부조리한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와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4.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에서 끝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6

# 정의를 쫓개로 바꾸며

아모스 6:1-14

1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2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3 너희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9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은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12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쫓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쏙으로 바꾸며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  
 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확대하리라 하셨느니라

### 마음이 든든한 자(1-6)

아모스 6장은 3장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 촉구와 마지막 장입니다. 1절입니다.

(1)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느도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법한데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만한 지도자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원문에는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굳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교만한 자와 같은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만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을 백성들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는 바로 서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리더, 신앙공동체의 리더, 단체나 모임의 리더,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말씀은 1절 첫 번째 어구, ‘화 있을진저’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러 지역에 가서 보고, 그 지역이 너희의 영토와 비교해서 넓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3곳으로, 첫째는 이스라엘 영토 밖의 북쪽 지역으로 추정하는 ‘갈레’, 둘째는 이스라엘 영토 북쪽 경계지에 위치한 ‘하맛’, 그리고 마지막은 골리앗의 고향이자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입니다. 이 세 지역 중 두 곳은 이스라엘 영토에 비해 넓지 않았습니다. ‘갈레’ 역시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비해 넓은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 현재 살아가는 환경이 더 좋아졌음에도 더 나은 곳에 마음을 두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3) 너희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한가위처럼 명절날이 오래 전의 일이었다면 그날이 그리워집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흥한 날이 많이 지났으니 포악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멀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내몰다’, ‘쫓아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흥한 날’을 내몰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솔로몬의 순금 ‘보좌’와 동일한 단어로 왕의 보좌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악한 자리’는 엄하게 심판받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한 지도자들이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6)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무사안일을 넘어 사치와 태만의 일상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상아 침대에서 잠을 자고, 도축 시기가 아닌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베짖이처럼 노래하고 유희하며 즐기고, 다윗이 하지도 않았던 일인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하고, 값비싼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육신에 신경을 쓰지만 환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요셉의 환난이란 형제처럼 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사회적 약자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향락과 사치를 위해 살아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빠지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장 6절을 보면 의인을 돈 받고 팔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치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돈을 펴펴 쓴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가난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팔았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힘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축재(蓄財)하였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소’군(群)에 속하게 됩니다.

###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7-11)

(7)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들이 무사안일에 빠졌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속박될 사람 중 제일 먼저 붙잡힐 것이므로 더 이상 아침에 상아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 켜는 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즐기는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지개 켜는 소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상 속 안일함에 빠져 무심코 내는 소리는 없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에서 ‘당신’으로 번역한 단어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에게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야곱의 ‘교만’을 뜻합니다. ‘영

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좋은 의미로는 영광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교만으로 사용됩니다.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은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에 의해 '검손 불감증'에 걸린 백성들 모두에 해당합니다. 지도자만큼의 부와 권력을 누리지 않았지만 약자들에 대한 상대적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백성들 역시 원수에게 넘겨지는 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삶의 영역이 미움을 받을 정도라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명예, 물질, 지위, 학벌 등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생각과 고백이 지속될 때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떠들고 다니면 '교만'이 됩니다.

(9-11)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은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존한 것으로 보여 오늘날 핵가족 시대 기준으로 감(感)이 잡히지 않습

니다. 이 표현은 수십 명의 가족 중 남은 열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5장 3절의 표현처럼 백 명 중 열 명만 남은 것이라는 맥락으로 보면 10분의 1수준의 아주 적은 사람만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열 명도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니 끔찍한 심판 예고입니다. 친척이 장사를 치를 정도라면 그 집안에는 장정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장(火葬)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 안에 숨어 있는 생존자가 속삭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집안의 비참한 몰락을 보여줍니다. 숨어 있는 생존자도 9절의 말씀대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 것과 앞으로 죽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부를 기회가 없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모두 몰락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한 가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큰 집은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을, 작은 집은 2지파의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몰락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 아라바 시내까지(12-14)

(12-13)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쭉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를 개간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금기로 간주되는 일,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순리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쓸개와 쓴 쭉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쓸개와 쓴 쭉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쓸개’와 ‘쓴 쭉’으로 번역한 단어를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독’과 ‘독약’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과 ‘뿔’로 번역한 단어들을 지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정복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는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치겠다’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 국경 최북단이며 아라바 시내는 이스라엘 국경 최남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외세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는 앗수르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변영의 시기에 교만해졌습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능력이 있고 지도자들이 지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은 안중에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신발 한 짝에 팔아넘길 정도로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되었고, 축적된 부로 사치와 향락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 중에 염소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로보암2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이라고 여겼다면 과연 태도가 달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어

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회적 약자를 주님을 대접하듯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부족하다거나 적당히 가졌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 굳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외에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환경에 갇힌 자 이외에도 걱정과 염려에 갇힌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을 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정의가 쓸개로 변질되지 않고 공의가 쓴 쭉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본받게 하시옵고, 마음이 굳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용해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마음이 든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 ‘흉한 날을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3. 상아 침대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혹시 나는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미용 관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헛된 노래에 빠져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4.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지금 이 세상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린다’고 말하고, ‘소가 바위에서 발을 간다’고 말하는 세상이라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묵상한 날 :

# 7

##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 7:1-17

1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지라 5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0 때에 벳엘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2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 다시는 벳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14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 이제 너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 세 환상-메뚜기, 불, 다림줄(1-9)

아홉 장으로 구성된 아모스 중에서 7-9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3개가 나오고, 8장에 하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나오고, 9장에도 하나, 성전 파괴와 민족 전멸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세 환상,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2a)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 치운 때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곡식’이나 ‘작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 역 성경은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 수확한 농작물은 왕과 국가의 군대를 위해 바치고, 차후에 나는 것이 백성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환상 재앙을 어떤 학자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 다글랏빌레셀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계획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메뚜기를 짓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왕이 풀을 벤 것보다 주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즉 주님께서 지으신 메뚜기가 왕이 풀(곡식)을 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풀(곡식)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그 땅의 풀(곡식)들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모스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북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2)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사하소서(살라흐)’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할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우상숭배 잔치를 벌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듯이, 아모스도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

대 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특히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이유와 의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yes’로 응답하시는지, 또 어떤 기도를 ‘no’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4-6)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아굽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은 불 재앙입니다. ‘내게 보이신 것’의 문자적인 뜻은 ‘그가 나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됩니다.

불의 재앙도 외적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말려버리는 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불이 바다를 삼키는(말리

는) 정도라고 하면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 재앙은 결코 북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다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숙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정비례합니다. 물론 그 역도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즉 기도의 깊이와 넓이도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정비례합니다.

(7-9)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재는 줄입니다. 집이나 성벽을 지을 때 그것이 바닥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떨어뜨리는 줄입니다.

주님께서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성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서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그들의 신앙과 삶이 도저히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느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거듭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아모스 vs. 아마샤(10-17)

본문 10-17절은 아모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벤엘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충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종과 인간들의 왕인 여로보암2세를 위해 일하는 인간의 종과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2세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했습니다.

(10-11) 때에 베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대 하나이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역모를 꾀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망칠 말만 하는데 온 나라가 참을 수가 없고, 여로보암2세 왕은 칼에 찔려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중에 ‘틀린 것, 바르지 않은 것’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전적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선포했다고 왜곡했습니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13)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벤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사는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2세에게 고발하고서 그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에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의 의미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예언을 전하는데, 당신 도대체 보기는 분명히 보았습니까? 잘못 본 것 아닙니까?”라는 의미로 비꼬는 것입니다. 또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예언하라는 것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당신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사십시오. 여기는 내 관할이니 여기서는 마십시오”라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적어도 벤엘에 있는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였습니다. 성전에는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 놓았으니 하나님의 성소는 될 수 없었고, 왕의 성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4-15)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던 직업 종교

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선지자 학교(신학교) 출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 떼를 기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고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농부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까지 불러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6-17) 이제 너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엮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전하면 군인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매춘부의 삶을 살게 되거나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환상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마샤 제사장이 자신의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거짓 상소를 올렸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양과 같지 않고 염소와 같으며, 겹손보다 교만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는 은총의 한 날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고,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불, 다림줄의 환상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마샤와 같은 거짓 제사장에게까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간에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자손이나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라, 목자와 빵나무 재배하는 사람까지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아모스 선지자는 매뚜기와 불, 다림줄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신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또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 아마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왜곡하여 고발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문이나 선지자 학교에서가 아니라 목자의 일을 보며,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1-14

1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2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6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밭을 팔자 하는도다 7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8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9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굶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14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들은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이십니다.

### 여름 과일 한 광주리(1-3)

(1-2)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서는 아모스에게 이미 보이셨는데 다시 “보라”라며 강조하십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모스에게 보라고 강조하신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고는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처음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고 아담은 답변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아모스의 답변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주리를 보여주신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서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이고,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인 “케츠”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언어적 유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계절별 과일이 다르고, 요즘엔 하우스 재배를 해서 추수의 특정한 때를 말하기 어렵지만, 팔레스타인의 여름 과일은 익은 실과, 마지막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렘 8: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긴 여름은 마침내 끝났고, 구원을 이루는 회개의 수확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과가 익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상이 관영하여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자비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도록 버려두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숯불을 스스로 머리에 쌓아 멸망 받아도 마땅한 행위의 보응이 이루어져 유감이 없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보통 여름 과일이 주는 이미지는 어떠한가? 풍성하고 향기로운 것 같지만 이는 운명이 다하고 국가의 수명이 마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세상에서 더욱 높아지고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해가 뜨기 전 어두움이 가장 짙은 것에 불과합니다.

(3)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귀를 즐겁게 해주던 궁전의 노래는 슬픈 곡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 친척, 가족 중에 누군가 별세하면 슬픔에 잠겨 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시체로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함이 몰려와서 사람들은 잠잠히 시체들을 내어버리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 이스라엘의 죄악상(4-6)

(4)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 22:40)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슬퍼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힘없는 자가 눈치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적극적인 선을 베풀지 않고 나의 생활의 안정만 도모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예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매월 첫날, 즉 월삭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수 이후에 나팔절이 있는 7월 초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민 29:1),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 선지자의 집에 모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왕하 4: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성의하여 빨리 절기를 끝내고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는 얼른 해치워 버려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자위하고, 나와 가정의 오락이나 육신의 사업을 더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각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어진 에바와 세겔에 관한 말씀은 모두 백성들의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값을 많이 받으려고 곡식을 담는 에바는 작게 하고, 무게를 다는 세겔은 크게 하여 저울을 속였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거짓 저울은 불의의 상징입니다(레 19:35-36; 잠 20:10; 미 6:10-11).

(6)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속여 착취하니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지불한 돈으로 가난한 자를 종으로 취합니다. 자신과 자녀에겐 절대 먹지 않을 밀의 찌꺼기 같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팔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무도 보지 않든지 모든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목전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타인을 대할 때, 타인 자체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 이스라엘의 멸망(7-9)

(7-9) 여호와께서 아굽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은 너무 끔찍해서 자연조차 슬퍼하며 대낮의 태양도 그 얼굴을 감출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태양의 비춤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게 됩니다. 태양을 통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거두심은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은 멈추고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암흑은 이스라엘에 낫설지 않은

개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사흘간 이집트 전역에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땅을 뒤덮은 어둠을 알고 있습니다(막 15:33).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가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전쟁이나 기근, 해일 이런 내용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멸망(11-14)

(11-1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만 만드시지 않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이 살아가는 방법은 물과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가도록 하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시험의 목적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떡으로만

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신 8: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요 6:33-35)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요 4: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서 거부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없고 귀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14)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에는 단 지방과 브엘세바 지방에 산당이 있었으니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암 5:5). 그러나 여호와를 가장한 거짓 신들은 아무런 쓸모도 도움도 주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를 줄 것처럼 위장된 신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멸망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잣대는 말씀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입니다.

(렘 15:16b)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시련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과 음료로 주어진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달아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가장 작은 자들을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회개的时间임을 기억하여 불의한 모든 마음과 행동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속이지 않고 선을 베풀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설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2.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죄악상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3. 영혼의 기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9:1-15

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3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4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 오르며 애굽 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6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8 보라 주 여호와와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

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  
 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 그들이  
 애도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  
 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총 9장으로 구성된 아모스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3-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7-9장은 5가지의 환상과 회복의 약  
 속에 대해 말합니다. 7장에는 메뚜기, 불, 다림줄 3개의 환상이  
 나오고, 8장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  
 인 9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9장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

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며, 7-10절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11-15절까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1-6)

1-6절까지 언급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환상은 앞장들에서 언급된 환상들과는 구조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환상들은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가 언급되지만, 9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만 나옵니다. 그리고 앞의 환상들은 아모스가 직접 본 것을 말하기에 시각적인 요소를 부각시킨다면, 9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각적인 요소가 부각됩니다.

(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1절에서 제단 곁에 서 계신, 즉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동안 성소에서 행해진 많은 죄악과 우상숭배의 모습들로 인해 이제는 성소의 기둥머리를 쳐서 성소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성소의 파괴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모든 예배자까지도 다 죽이신다고 합니다.

성소가 파괴될 때 성소 안에 있던 자들까지 다 죽이신다는 것으로 성소에서의 예배가 가나안인의 예배 형태, 즉 이방인들의 예배 형태를 따랐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와 제사 행위는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 우상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7-10)

7-10절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7절에서 언급되는 두 개의 질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으로 생긴 민족적 자만심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구스족은 에티오피아인을 뜻하는데, 그들은 흑인으로 주변 민족들로부터 많은 경멸을 받아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스족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며 이방인이라 불리는 블레셋과 아람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마냥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선민으로 여기고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금수저든 흙수저든 아무 상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심(11-15)

11-15절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15절의 기록에 대해 성서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으로 일관하던 아모스서가 갑자기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부분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 편집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동안 단순히 심판과 멸망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1-15절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무너지고 각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 허물어진 것을 예전처럼 다시 세우시겠다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14-15)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15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읍을 건축하고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장의 마지막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11-15절까지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잘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추방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그



리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를 죽이는 자는 일곱 배나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창 4:15).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 9:13).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물질, 건강, 직장, 진로,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마음만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 큰 십자가로 보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끊임없는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일들 속에 지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옛적과 같이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공의의 하나님’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2. 당신의 삶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필요한 ‘무너진 장막, 황폐한 성읍’은 무엇이 있습니까?
4.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이제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오바다



차례

오바다 1:1-21



## 오바다의 묵시라

오바다 1:1-21

1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흠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10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

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2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  
 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  
 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 네거리  
 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5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  
 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  
 갈 것이라 16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  
 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7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  
 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  
 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  
 셧음이라 19 그들이 네겔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  
 르앗을 얻을 것이며 20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  
 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겔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21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  
 와께 속하리라



##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1-9)

오바다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유일하게 1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는 1장짜리가 4권,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바다’라는 인물이 성경에 몇 명 등장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기근이 극심할 때 왕궁을 맡은 사람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몰래 숨겨 두고 빵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바다는 선지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에 동참했던 인물 중에 오바다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도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바다’의 뜻이 ‘여호와와 종’입니다. 또한 이 이름은 ‘에베드\_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9절은 에돔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a)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묵시(하존)’라는 말은 ‘계시’, ‘말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라는 의미입니다. 한 국가의 대사가 대통령의 명을 받고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전하면, 그 말을 대사가 자기 입으로 말할지라도, 그 말은 대사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선지자가 목이 터지라 외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가 됩니다.

(1-2)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화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에돔은 아주 작게(보잘것없게) 될 것이고, 굉장히 경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당시의 초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최고 통치권자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밝힙니다.

(3-4)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이상 되는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한산인데, 가장 높은 곳인 ‘백운대’가 해발 836m입니다. 평소 등산하지 않던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쉬운 높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산은 높을수록 올라가기가 더 힘듭니다. 에돔 사람들은 북한산 위에 또 북한산을 하나 더 올려놓은 정도의

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은 곳, 바위틈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게다가 조류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또한 시력도 좋아서 2,000m 상공에서 들판을 지나는 쥐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독수리 둥지와 같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 살았던 에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끌어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가 물건을 훔칠지라도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만 가져가든지,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갑니다. 또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 서리를 할 때도 밭에 있는 포도를 전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을 정도만 갖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긴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깊이 감추어 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8-9)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자헤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혹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런 사람들을 남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만’은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를 뜻하거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듯 에돔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만이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이든 에돔 전체를 뜻하든, 군인들이 모두 멸절을 당한다는 것은 에돔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에돔의 죄(10-14)

10-14절은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10)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네 형제 야곱(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들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파셨습니

다. 야곱이 팔죽을 쑤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붉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에서는 말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팔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붉은 팔죽으로 인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고, 그 뜻이 ‘붉다’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모두 이삭과 리브가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신 23:7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에돔 지역을 통과만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밭이 있는 지역이나 포도원이 있는 지역은 결코 통과하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큰길로만 지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가겠다고 하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두 민족은 오랜 기간 적대적이었습니다.

(11)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인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멀리 섰던 날’의 문자적인 뜻은 ‘반대편에 섰던 날’입니다. 즉 에돔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함께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와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약탈했습니다.

(12)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표현이 ‘현재,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긍정형’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으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으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렸으며’입니다. 과거 긍정형의 일을 현재 부정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더욱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만큼 통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질하며 “썩통이다!”, “고소한 참기름이다” 등등을 큰 소리로 말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13-14)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현재, 부정형’으로 된 것을 ‘과거, 긍정형’으로 읽어야 합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문으로 들어갔고, 고난을 덜어 주지 않고 방관했으며, 손대지 말아야 할 재물에 손을 댔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더 나아가 원수(바벨론)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에돔의 이런 만행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며 불순종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15-21)**

15-21절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5)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에돔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B.C. 322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함락당하여 수천 명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A.D. 66-73년에 있었던 ‘제1차 유다-로마전쟁(First Jewish-Roman War)’ 또는 ‘유대독립전쟁’ 이후에는 역사의 뒀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7-18)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에돔이 보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는 유다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침략자의 편에서 함께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 재가 된 것은 에서 족속(에돔)이고, 반면에 야곱 족속(남유다)과 요셉 족속(북이스라엘)은 불꽃처럼 되살아나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1)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이 ‘오바다’의 결론입니다. 스스로 난공불락이라 여기며 교만했던 에서의 산(에돔)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까운 사람(가족, 친척, 교우 등)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칠 때 그것이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짓누르는 것인지,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짓누르는 삶은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한 날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그 후손들은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1,500m나 되는 곳, 바위틈에 요새와 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당할 때 침략군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가족과 친척, 교우 등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돔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난공불락이라 여겨 교만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한 일은 없습니까?
2. 에돔은 같은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데 바꾸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4.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대가를 지불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요나



## 차례

요나 1:1-17

요나 2:1-10

요나 3:1-10

요나 4:1-11



##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 1:1-17

1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7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 바다가 점점 흉용한 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14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니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는 신기한 큰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면서 또한 독특한 선교적인 메시지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깨운 선지서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며 사람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는 북왕국 여로보암2세 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왕하 14:25, 새번역)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밋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요나는 북왕국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  
보암(B.C. 793-753) 시대에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  
보암2세 때 북왕국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에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하여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앗수르의 수도 니  
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요나가 4장에서 고백합니다.

(4: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과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로우셔서 니느웨가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  
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이 앗수르 사람들이 회

개한다면,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힘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4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요나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입니다. ‘아미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미타이에서 헬라어 아멘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멘은 ‘신실, 진실’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들 이름을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로 지었습니다. 비둘기는 보통 용서와 평화 또는 메신저를 상징했습니다.

아밋대는 자기 아들이 비둘기와 같이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고, ‘케라’는 외치라는 뜻입니다. ‘쿰, 케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만큼은 결코 가지 않겠다는 자기 철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중에 ‘하나님, 다른 모든 나라는 펜찰지만, 일본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인순교자기념관 건물에 들어서면 정면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장면을 담은 그림이 보이고, 왼쪽에는 요나 선지자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흔쾌히 건너온 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명령 앞에 씩씩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여 고국을 떠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명령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보내시려 할 때 얼마나 내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다시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뿔이 얼굴을 수풀에 숨기고 있으면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는 다 보이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동시에 응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낚을 피하여 도망하는, 또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사명을 저버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4)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에게 찾아 오셔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통해 요나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5)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던 신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배가 가라앉지 않게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 왜 자고 있는지 따지며 그를 깨웁니다. 요나는 처음에 읊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

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 영적 침체를 가리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에게 이방인이 다가옵니다.

(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앞선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쿰, 케라’, ‘일어나라,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케라’는 ‘부르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잠만 자지 말고 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운 것처럼,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각성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으면 세상을 통해서도 깨우치됩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혹시 지금도 신앙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쿰, 케라’ 나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또는 안일함 속에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다고는 하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나에

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꿈, 깨라’, ‘쿰, 케라!’ ‘일어나라!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던 중에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라는 단어는 어떤 몫을 정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고대에는 작은 조약돌이나 질그릇 조각 또는 나무 조각 등을 사용하여 그것을 던져서 무엇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작은 돌과 같은 것을 던졌는데 요나 앞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인정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더 거세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힘을 써보지만 폭풍이 더 심하게 몰아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

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했지만, 요나의 고백 이후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14, 새번역)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니, 자신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곧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희생제물을 드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16절을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6, 새번역)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믿고 섬기기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몇 사람이라도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셔서 불순종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잠자던 요나를 깨워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다시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 하면서 깨닫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만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억울하게 다가온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들 역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한 날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요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잘못된 길을 갔던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큰 풍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3. 요나의 사명 감당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곧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며,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열방의 민족은 어디이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2

##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2:1-10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და 하였나이다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죄악으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던 ‘니느웨’

성읍에 가서 거주민들의 악독을 외칠 것을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아주 먼 곳인 ‘다시스’로 향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배를 탄 무리에 의해 물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허우적거릴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어둠과 해초와 짙물과 위액 분비물이 뒤섞여 있는 환경입니다. 요나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곤란해지고 몸이 서서히 위액에 의해 녹으면서 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 어둠 속에서 몸이 서서히 죽음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요나의 기도\_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2-9)

(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을 ‘스울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스울’은 성경 각주를 보면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삼켜졌으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깐 숨을 쉬고 감각은 살아있지만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요나는 바닷물에 빠지기 전에 배를 탄 무리에게 거센 풍랑이 닥친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바다에 내다 던지면 그들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스울의 뱃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적절하게 올 것입니다.

(3)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바다에 빠진 후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깊은 바다’와 ‘큰 물’을 움직이셨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잘못된 길을 파도와 큰 물결로 막으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손길입니다. 거센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으심이었듯이 우리 각자에게 닥친 고난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은혜입니다.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누가 요나를 주님의 목전에서 쫓아냈겠습니까? 요나는 현재 고난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요나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지금의 고난을 벗어나

게 해 주실 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면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 밖에 나면 의지할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어디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3절의 기도와 유사하게 물과 깊음과 바다 풀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요나는 육신의 죽음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는 육지의 산봉우리가 바다 아래로 이어진 가장 아래쪽입니다. 요나가 가장 깊은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깊은 곳,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빗장으로 막으셨다는 것 역시 땅 아래 죽음의 세계에 가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살아나기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져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간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은 2절의 고난처럼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로서 극도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

다는 2절의 내용 반복입니다.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다면 영혼의 고난입니다. 요나는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시인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시인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8-9)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을 호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스로 도망한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고 소명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다가 몰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다면 제 목숨을 구원하

고자 했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많은 것을 바치거나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중점(重點)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요나는 서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이제 살려주시면 그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시키는 사역임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 가운데 또 다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을 원하십니다. 요나의 생각이 한참 짧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이 요나를 이끌었습니다.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밖으로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었습니다. 이 장면은 불순종했던 요나와 순종하는 물고기의 대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물고기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본질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라 동식물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순종이 자기 대가를 치루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여 멀리멀리 갔던 저희를 고난을 통해 불순종의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닥치는 고난의 원인이 불순종으로 인함임을 알았습니다.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덮쳐진 것이 아버지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산의 뿌리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땅에 갇혀 지하 문이 빗장에 걸린 것처럼 출구가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더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지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겠습니까?
2. 요나가 자신이 갇힌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세계인 ‘스올’로 고백할 정도로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을 때를 회상하며 그때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요나의 고백이 자신의 구원 이외에, 악독하고 무력을 휘두르는 강대국 니느웨 사람까지 확장된다고 본다면, 나의 구원관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5.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묵상한 날 :

### 3

##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3:1-10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지라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7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 두 번째 소명예의 순종(1-4)

성경 요나는 선지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같은 4장으로 구성된 ‘말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아주 일부분만 알고, 3장으로 구성된 ‘요엘’, ‘나훔’, ‘하박국’, ‘스바냐’의 내용 역시 아주 일부분만 알거나 거의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반면 요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요나가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증거합니다.

1-4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에 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 선지자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선지자답게 만든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즉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 신학대학’을 속성으로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신 각종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가져 ‘종합병동 신학대학’을 다녔어야 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판잣집 또는 사글세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속앓이 신학대학’이나 ‘눈물의 골짜기 신학대학’을 수료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육지에 토해냄을 당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큼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똑같이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두 번째로 부르심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총이었습니다. 만약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이내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두 번째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만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할 때, 그 숫자가 장정(가장, 家長)만 해도 603,55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출 12:38)’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도시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0년간의 광야생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방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시돈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돈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시돈 지방이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온 세상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니느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1장 2절 상반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과 동일하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결코 동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는 시제뿐만 아니라,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되기 때문에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동사만으로도 주어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조할 때는 대명사이어도 사용합니다. 2절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선포해서는 안 되고, 또 당시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선포해서도 안 되며, 오직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제1의 태도는 ‘일어남(히. 쿨)’입니다. ‘일어나다’는 단순히 앉은 상태에서의 움직임 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드림과 순종을 뜻합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QT(경건의 시간)를 갖거나 새벽기도회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할 때 제일 첫 단계가 ‘잠자리에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능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섬’을 다르게 표현하면 ‘운동화 끈 또는 신발 끈을 묶음’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한 니느웨의 규모가 어떠한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3)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1800년대만 해도 서울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거 4대문 안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럽의 도시들도 크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절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고대에 7세 미만의 아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frac{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것처럼 니느웨는 큰 도시이었습니다.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니느웨 거리를 하루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까지 횡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장소에 서만 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루 동안 외치니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다닐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반응을 보면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길을 하루만 다닌 것입니다. 즉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루 동안만 다녔을지라도, 그가 외친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사형집행 날짜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사형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 니느웨의 심판 연기(5-10)

5-10절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연기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지라

요나 선지자가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나 있다가 나온 사실이 알려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데, 그것을 금하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굶은 베 옷’은 장례식이 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주로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이 국가가 죽는 것과 같은 재난 상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6-8)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에게 그 일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일이’의 문자적인 뜻은 ‘그 말씀이’입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와 백성들의 회개를 겸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을 때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도 마시지도 말 것과 굶은 배 옷을 입을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는 ‘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에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시리아의 왕 벤하닷에게 포위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쯤에 포위도 풀리고, 물가도 거의 본래대로 복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당신의 눈으로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뱉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  
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방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즐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는 특이하고도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할 만큼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가기 싫었을 것입  
니다. 그렇게 거대한 도시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  
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피하려고 했던  
자기 십자가를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대가를 지불했  
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사흘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  
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하룻길만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행사 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  
쳐서 읽었습니다. 그 중 ‘메길로트(오축\_다섯 개의 두루마리,  
Five Scrolls)’라고 불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아가  
를 읽었고, 칠칠절(오순절)에는 룻기,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  
미야애가,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에는 에스더,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에는 전도서를 읽었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그날  
에 요나를 읽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  
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실패했던 것, 실  
수했던 것을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처음부  
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 자신이  
저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고 했던 것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요나는  
요나 선지자의 참회록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총에 감사  
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묵묵히 향하시는 한낱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도 확인합니다.

우리도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만이 아니라 스무 번도 넘고,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이방인이라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의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여겨졌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 요나 선지자는 사흘 동안 걸어야 했을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가 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서 그다음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4.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4

##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1-11

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영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영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영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

밤에 말라 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선지자의 본분은 여호와와의 신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의 틀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 불만을 담은 요나의 기도(1-4)

이러한 요나의 상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싫어함과 분노였습니다. ‘성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이’는 ‘악하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 주시며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악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악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음을 나타내는 이 ‘라아’는 요나서 1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단어였습니다.

(1: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던 니느웨의 악독이 ‘라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니느웨의 악독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요나의 분노가 니느웨의 악독함과 같은 것임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악으로 평가하는 요나는 기도를 통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2-3)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다시스로 도망갔었고, 그대로 두었다면 니느웨는 심판을 당했을 텐데 자신을 불렀기에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고 불만을 섞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요나는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민족의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상황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며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7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인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요나였지만, 원수를 향한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냉정을 잃었습니다. 그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자기의 뜻과는 같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죽도록 싫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외마디의 질문뿐이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자기가 분노한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고,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분노가 옳은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악독함과 요나의 분냄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나 역시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태였



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요나는 그것마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요나가 원수된 사람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의 회개마저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패러다임은 회개와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며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때를 쓰듯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했으나, 정작 내가 서 있는 곳은 내 뜻에 닿은 곳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네가 옳으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 공활하신 하나님(5-11)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편 밖으로 나가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어 거기에 앉았습니다. 초막은 가축의 우리나 원두막 같은 보호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초막에 앉아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 성읍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는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 한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시자가 된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읍에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읍이 아닌 요나에게 행동을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6-8절에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요나에게 향하고 있으며, 사역의 도구로 ‘박넝쿨’(6절), ‘벌레’(7절), ‘동풍’(8절)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 사역의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1장에서는 ‘폭풍’과 ‘큰 물고기’가 사용되었는데, 4장에서는 또

다른 세 가지 사역의 도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돌  
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의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은 요나를 위한 하나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영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영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영쿨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  
니다. 박영쿨의 은혜를 입은 요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  
뻐했다고 증언합니다. 1절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요나  
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임  
한 것을 보며 요나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자, 기쁘게 여겼습니다.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지켜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7-8절을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7-8)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영쿨을 잡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별레를 통해 베푸셨던 박녕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 잔잔한 바다 가운데 바람을 던져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박녕쿨 가운데 별레를 통해 그것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은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나, 초점은 모두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박녕쿨이 말라 그들을 잃은 요나에게 설상가상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해가 내리 쪼았습니다. ‘쪼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카’는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세 번째 도구는 분명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에 요나는 응답합니다. 3절의 고백과 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는 고백이었습시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녕쿨로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1절 요나의 분노를 반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보며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박녕쿨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물으시며, 그를 책망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책망에도 요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분노로 인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옳다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심중에 변화가 있지 않은 이 굳어버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10-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넙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요나)’가 사랑한 ‘박넙쿨’과 ‘나(여호와)’가 사랑한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이루며 설명합니다. 하룻밤에 말라 버린 무력한 박넙쿨의 사라짐을 안타까워했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니느웨의 백성을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무런 수고함 없이 자랐던 박넙쿨을 소중히 여기듯,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까지 소중히 여기셨음을 이 선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박넙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물질, 박넝쿨을 소중히 여겼지만,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한 생명보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러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비록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에 찾아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워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움직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반복해서 이해시키시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종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발을 떼는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여기며 기꺼이 발을 떼어 나아갈 때, 세상은 비록 우리의 인생을 덧없다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그 주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변화의 물결에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성을 니느웨로 나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하며, 기꺼이 한걸음 한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보며 뒤에 있는 누군가가 손해 보는 길이라고 말하며 어리석다고 여길지라도 앞서 걷고 계시는 주님만을 곳곳이 바라보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곳곳한 시선과 묵묵한 이 걸음으로 인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름을 알았을 때, 지난날 우리의 선택은 어떠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2. 우리의 선택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3.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주시며 기다려주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경험 이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4.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미가



## 차례

미가 1:1-16

미가 2:1-13

미가 3:1-12

미가 4:1-13

미가 5:1-15

미가 6:1-16

미가 7:1-20



묵상한 날 : . . . . .

1

## 임한 여호와의 말씀

미가 1:1-16

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2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  
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  
리하실 것이니라 3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  
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었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6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  
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8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  
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 9 이는 그 상처  
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  
렘에도 미쳤음이니라 10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11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  
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벤에셀이 애곡하

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12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13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14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15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16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고 약 200년쯤 흐른 후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공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고, 자신들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었던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미가를 선택하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임재(1-3)

(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을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가는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34km에 위치한 작은 농업마을입니다. 이곳에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와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산물을 착취하거나 땅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레셋은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외적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머리가 노랗게 물들고, 피어싱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어느 성도님이 “청년!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직장이나 제대로 다니겠어. 대체 학교는 다니긴 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는데요”라고 하자 순간 정적이 흐르고 “아~ 어쩐지, 창의성이 있게 보이더라”고 말하며, 그분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평소 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가능할까? 과연 저 상황에서 가능할까?”라고

편견을 갖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합니다. 보잘것없는 모레셋 출신의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심판과 회개에 대해 선포하며, 결국 훗날 5장 2절에서 소망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가 임하면 주로 땀감으로 사용하는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이 십계명을 담는 법궤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극렬한 죽음의 상징이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십자가를 부활과 소망의 상징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크게 감동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치 ‘큰 태풍이 휘몰아쳐 와서 모든 것을 갈아엎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을 때, 혹여나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쳐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하셔서 결국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나약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을 평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 말씀을 품는 자(4-7)

(4-7)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미가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산들을 녹이고 골짜기들을 갈라지게 할 정도의 큰 형벌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이웃에 행악을 저지르며 공의와 정의를 어지럽히는 죄악’

을 저질렀습니다.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허물과 죄들이 난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방관하고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를 더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5절과 7절에 설명되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교만에 대해 “왕이 여호와와 말씀의 버렸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미가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렘2:13). 심판이 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여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싱크홀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도심이든 자연이든 땅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져 그 위에 있는 사람과 건물 등이 주저앉아 심각한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그 지반에 있어야 할 지하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사라지니 주변을 지탱하던 토양들이 소실되면서, 결국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싱크홀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 앗수르보다 이스라엘(8-16)

(8-15) 이렇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과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야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렇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라 마려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8-9절에 미가는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앞에 놓인 운명을 바라보고 처량하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가가 그렇게 애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마리아의 죄가 더 이상 치유될 가능성조차 없으며, 사마리아의 문제가 예루살렘까지 전염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제14년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순식간에 무려 46개의 성읍을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기 위해 포위하였습니다. 10-15절에 나온 성읍들이 바로 이때 앗수르에 함락된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12절에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고 말씀하듯이 원래의 아름다운 의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통하여 삶의 자리가 재앙으로 가득한 저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침공한 앗수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앗수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처절한 형벌과 황폐함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거나 기도의 내용을 먼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 기도의 내용(본질)이 응답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십니다.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다. 이때 이들은 대적 미디안 등을 물리치는 강한 용사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응답은 강한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기도응답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탕(환경)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킨 후에 보내주신 것은 그들의 기도 응답인 기드온입니다.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빛, 하늘, 산, 바다, 식물,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5-6일째, 거기서 살아갈 ‘새, 물고기, 동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를 들어주는 바탕(환경)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기도하기보다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환경)이 먼저 조성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며, 그럴 때 주님은 역

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품고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에, 또한 우리의 삶에 여호와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각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소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전하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내용만을 구하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응답 될 수 있는 바탕(환경)을 먼저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평소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과 그 이후 달라진 생활습관이 있습니까?
3.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봅시다. 말씀을 머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님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4. 지금 하는 기도 중에 내용보다 바탕을 위해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 2:1-13

1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3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4 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5 그러므로 여호와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6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7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8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겹옷을 벗기며 9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10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1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

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 사회적인 죄(1-5)

총 일곱 장으로 구성된 미가는 총 세 편의 예언이 나옵니다. 1-2장은 심판의 예언이고, 3-5장은 회복의 예언, 6-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1장에 이은 내용으로 멸망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5)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즉 ‘북이스라엘의 죄’는 ‘수도 사마리아’이고, ‘유다의 산당’, 즉 ‘남유다의 죄’도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십니다. 즉 두 나라의 수도가 죄의 진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교육 등의 중심지입니다. 그 나라 수도의 정의는 국가의 건강함과 직결되고, 수도의 부패는 국가의 허약함과 직결됩니다. 수도가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는 벚은 몸으로 행했습니다.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파국을 맞기 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5절은 사회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 나열합니다.

(1)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꺾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성경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꺾하며’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는 감탄사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 ‘화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를 꺾었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꺾하다’, ‘꾸미다’, ‘행하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악을 행할 궁리를 하고, 날이 새자마자 실행했던 것입니다.

‘침상’은 사적인 공간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침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장소로 언급되기도 하고, 죄악과 방탕의 장소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침상’이라는 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거룩하고 신실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방탕하고 허물어지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예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신독(愼獨)’이 있습니다. ‘삼갈 신’자와 ‘홀로 독’자인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愼)’자는 ‘마음 심(忄)’ 변에 ‘참 진(眞)’자입니다. 즉,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절제하며 사는 힘은 마음에 진리(하나님의 말씀)를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악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침상에서 꾸미고, 날이 밝자 행한 악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2)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악행은 다른 사람의 밭과 집과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나 남자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버리면 가장과 집을 잃은 아내나 자

녀들은 굶어 죽거나, 그들도 노예로 팔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실 것을 계획하시는데 그 대상이 ‘이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언제나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언행을 해서 그에게 화가 많이 날 때 “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인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이 이(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의 노예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 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을 옮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5) 그러므로 여호와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와 회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패역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입니다.

마치 큰 사업을 하는 부모가 자식 중 누구에게 사업체를 물려줄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첫째는 사기꾼, 둘째는 도둑놈, 셋째는 강도, 막내는 행방불명이어서 아무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가 해외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멸망의 선고(6-11)

6-11절은 악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질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6)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  
으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이,  
또 때로는 직언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8-9)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겹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움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행한 일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겉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피난 가는 사람에게 겉옷을 통행료로 받았거나, 탈취한 것입니다. 중동은 일교차가 매우 큰 곳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옷을 저당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출 22:26). 겉옷은 목숨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빼앗았습니다.

또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가장)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어린 자녀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함께 사는데,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래에’ 행했다고 합니다. ‘근래에’의 우리 말은 ‘최근에’의 의미이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과거부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까지 이런 악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10)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의 죄악이 그 땅을 너무 오염시켜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

성들은 북쪽과 남쪽이 차례대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사 주었는데 그 자동차로 사람들을 반복해서 다치게 만들고 있다면, 자녀에게서 자동차를 빼앗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11)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는 물처럼 마시는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이고, 반대로 ‘독주’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입니다. 이런 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풍요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지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 회복의 약속(12-13)

12-1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 떼’와 같이, 또 ‘초장의 양 떼’와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스라’는 모압의 대표적인 목초지입니다. 보스라는 지금의 뉴질랜드와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500만 명도 되지 않지만, 양은 수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 떼와 초장의 양 떼와 같이 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다시 돌

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곳은 언제나 우리 안이 되어서 잃은 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눌렀던 것은 자신이 본래 잃은 양이었던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사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우리 속에 넣어 주셨기 때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군림하게 만들지 않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평생 우리를 초장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침상’에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 자신의 삶이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장의 양 떼와 같이 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선두로 가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4.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3

## 지도자의 죄악상

미가 3:1-12

1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 너희가 선을 미워하  
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 그  
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  
굴을 가리시리라 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  
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 그러므로 너  
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저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  
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 오직 나는 여호와와의 영으로 말미암  
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  
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  
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1-4)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정치적, 또 법적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땅한 자격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2절에 표현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라는 말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선을 미워하고’에서 ‘미워하다’의 원어인 ‘사네’는 ‘극렬한 미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악을 기뻐하여’에서 ‘기뻐하여’에 해당하는 원어 ‘아하브’는 ‘무언가에 강하게 끌리거나 매료되어 애정을 갖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문법적으로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라는 말은 ‘선을 극렬히 싫어하고 악에 매료되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악을 탐닉해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악행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2-3절이 생생한 비유로 그

려주고 있습니다.

(2-3, 새번역)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족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 먹는다. 가족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족에게 숨도 설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괴롭힘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백성은 단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려 달라고 부르짖더라도 그 호소를 들은 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합니다. 숨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의 자비 없이 어떤 인생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는 말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

나눔께 집중하지 않으면 악에 매료되어 지속적인 악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이든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시 선을 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5-8)

이제 5-8절에는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죄악상이 그려졌고, 이들과 대조되는 미가의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상은 이렇습니다.

(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뭔가 뇌물을 받으면 평강을 선포해 주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 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얘기하시면, 위협이 있어도 경고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름을 밥 벌이로 이용했습니다. 돈을 주면 좋은 신탁을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헐박하고 저주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6-7, 새번역)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길가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죄악을 일삼는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흑암이 이른다는 말인데,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한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예언할 수 없도록 침묵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이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세상에 드러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치와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어도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과 함께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얻고 누려온 불법적인 모든 것마저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흑독한 심판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예언 후에 미가는 그 악한 선지자들과 대조적인 자신을 피력합니다.

(8) 오직 나는 여호와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굽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정의, 용기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 지도자들의 죄악상과 예루살렘의 멸망 선언(9-12)

이제 9-12절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9-10)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3절에 이미 지도자들의 악행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되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혐오하고 악을 좋아하여 일삼는 것도 모자라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는 말은 바른 것을 구부렸다는 것인데, 선한 것을 악한 것처럼 또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왜곡시켜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한 길에 들어서도록 가치관을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악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흘린 무고한 백성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마을’이란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죄의 마을, 억울한 피의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도자의 중심에는 ‘재물, 돈’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 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1절, 새번역).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그들만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은 밭을 갈 듯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일차적으로 오늘날 지도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작고 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늘 의식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반겨주시고 강한 어깨 위에서 쉼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도 늘 기억하여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작품의 한 조각으로 잘 맞춰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고, 능력, 정의, 용기를 충만히 채우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미가 선지자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늘 기대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잘 살피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과 정의, 용기를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주님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은 어떠했습니까?
2.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4.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느낍니까?

4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미가 4:1-13

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와 그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를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8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9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

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  
 10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  
 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  
 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  
 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 그들이 여호와  
 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 딸 시온이여 일어나  
 서 칠지어다 내가 네 뺨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  
 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  
 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1-6)

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말씀입니다.

(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리라 짐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의 전, 즉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  
 이고 그때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  
 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에 민족들이 몰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이겠습니까?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은 1절 ‘민족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이유는 배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입장이 허용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시다. 그들이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라 했습니다. 그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오고 거룩한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3장 12절에서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날에’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황폐와 수치의 장소였지만, ‘끝날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 시온과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시대가 지속되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를 3-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민족들 사이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통치를 의미합니다. 산들의 꼭대기 위에 시온 산이 굳게 서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로서 먼 곳에 있는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결과가 강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칼과 창을 보습과 낫의 농기구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더 이상 서로 치지 않을 것이고 전쟁 연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언제라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전쟁에 임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전쟁 훈련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 전쟁 무기가 사라지고 전쟁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 평화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평화의 시대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절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각 사람이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가질 만큼 안정된 나라에서 삶과 평화를 누림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상징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뜻하므로 풍요와 번영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 아래 쉴 수 있다는 것은 평화를 깨트리고 위협

할 자들이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것은  
만민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5절  
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제일 앞에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그 뜻  
은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4절의 풍요와 평화는 하나님의 이름  
을 의지하는 자에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입  
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허망  
한 것을 신으로 의지하는 자는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6-13)

(6-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6-8절은 평화와 회복의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귀환을 의미하지만, 세상 권력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귀환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끝날에’ 완전한 평화와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 제멋대로 나간 잃은 양을 찾으시듯이 쫓겨난 사람들을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은 자들이 단지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국방이 튼튼한 나라이겠습니까? 강한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나라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심은 원상회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비참히 멸망당했습니다. 현실을 보니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가 왕이 없어졌고 모사(전략가)가 죽었기 때문인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실만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 고통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때론 목소리 높여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울며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2절에 언급된 율법이고 여호와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66권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10)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해산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겪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11-13)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며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뽕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굵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를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본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에는 그곳이 너무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삶의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치안이 불안하고 국방력은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시온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열악한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기에 그 어떤 위협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방 사람들을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 같이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를 13절이 말씀해 줍니다. 딸 시온이 위협하는 자들을 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모욕하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그들이 악

자로 알아보았던 시온의 손을 통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쫓아 무쇠 같고 굽이 낮 같은 강한 동물로 의인화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뿔과 발로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이방 사람들을 치도록 하셔서 그들의 탈취물을 획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획득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멸망이 갑작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회복이 한순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 무리에서 벗어나 제 길을 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그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오셔서 시온에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당신을 찾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길 잃은 양을 발견할 때 그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빨리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십시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이 수풀 위에 놓이도록 뇌물과 값과 돈을 위하여 살았던 저희에게 평화와 회복을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평화와 회복을 위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의 과정이 필요함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저희를 어깨에 메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에 민족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3.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4. 하나님께서 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주십니까?
5.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변하는 평화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묵상한 날 :

# 5

##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미가 5:1-15

1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  
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  
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  
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  
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  
리라 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  
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  
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  
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11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2 내  
 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  
 며 13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 메시아의 탄생(1-4)

미가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오늘 본문 5장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  
 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4절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  
 을 목격했고, 장차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  
 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무너지는 것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딸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

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딸’은 ‘약한 존재’이고,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싼다’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당하게 될 모욕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판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이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사’를 영어로 ‘Judge\_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공동번역성서는 ‘판관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재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을 모두 가진, 그 지역의 왕이나 대통령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각 지방에는 ‘사포’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에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었는데, 사포들이 다스리는 현(지방)에도 동일하게 6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사에 해당하는 포졸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포는 그 지역의 왕이자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왕부터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빤을 친다’라고 하는데, 빤을 때리는 것은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빤을 치는 것이 손이 아니라 막대기(목자들이 맹수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도구)라면 달라집니다. 모욕과 함께 고통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고, 애굽과 친밀했다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메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참 목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 베들레헬 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가장 또렷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헬’의 옛 이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목적지로 예루살렘 왕궁을 택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니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동이 벌어진 왕궁에서 헤롯 대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는지를 물었더니, 그들은 이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베들레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베들레헬’은 ‘빵(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떡)이신 예수님

께서 ‘뽕(떡)집’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은 로마나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과 같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도시에, 비천한 직업의 목수의 아들로,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세상에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람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을 때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출발이 되었

습니다. 그때를 시편에서는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합니다. 또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서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께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 것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4-5b)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이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서서(그가 서서)’입니다. 목자가 서 있다는 것은 자기 양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 온 세상이고,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

녀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 메시아의 통치(5-9)

5-9절은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6)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에서는 목자 7명과 군왕(장군) 8명을 내세워서 물리칠 것이며, 메시아께서 그들에게서 유다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중동의 패권자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감행하면 유다는 목자 7명과 장군 8명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꼭 7명, 8명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자성어 가운데 ‘칠전팔기(七顛八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꼭

7번의 실패와 8번의 일어섬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 번 넘어져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기에 ‘일곱 목자’는 ‘많은 목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8’은 일곱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7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왕’도 ‘많은 장군’을 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메시아)’가 건져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여러 도시는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는 속수무책이었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영의 군대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아시리아의 군인 185,000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간 산헤립 왕은 자기 신하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릴 복과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9) 아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는 ‘이슬’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수단으로 묘사되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연간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4-10월까지의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로 인해서 연간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받아서 생활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목축과 농경에 최소한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슬은 사람의 생명 유지와 농작물을 살리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둘째는 ‘단비’와 같다고 합니다. 비 역시 곡식이 잘 자라게 해 주는 은혜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비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9월 중순에서 10월 사이에 조금 내리는데, 그것을 ‘이른비’라 하였습니다. 이른비는 곡식을 파종하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4월경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것을 ‘늦은비’라고 하였습니다. 늦은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잘 여무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겼는데, 그 둘을 합쳐서 ‘단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사자는 백수(百獸)의 제왕

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적들 위로 손을 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웠는데, 정작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 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메시아의 정화작업(10-15)

10-15절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이 구절이 우리 성경으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날에 이르러는’부터 시작됩니다. ‘그 날\_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날,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날에는 군마와 병거를 없애신

다고 합니다. 군마와 병거는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력을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좀 구비되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 뿌리를 자르시겠다는 것입니다.

(11)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성읍’과 ‘견고한 성’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을 견고하게 쌓고, 요새를 튼튼하게 지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읍’과 ‘견고한 성’은 ‘세속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12-15)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등을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당시의 우상숭배는 문란한 성행위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보고 신들도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

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신이 아니라 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한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유다가 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갖추어지면 저절로 나라가 지켜지고, 저절로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였겠습니까? 자신들이 ‘양’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음에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패망과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허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이 양인 것을 잊지 않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 아시리아 제국에 유린당하고,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목자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은 우리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도 아니고, 성과 요새도 아니며, 오직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비롯하여 남아 있는 생애 동안,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병거와 요새, 각종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난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은 자’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슬과 단비와 사자와 같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3. 베들레헴은 유다 중에서 작은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모두 수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수용해 주신 당신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4. 우상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바른 삶, 바른 예배**

미가 6:1-16

1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4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5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라이 꺾은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싯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리

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11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13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였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 올바른 예배(1-8)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재판관 삼아 이스라엘을 우주적인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왜 산들과 땅을 소환하십니까? 이들은 무생물이나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성격을 지녔기도 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신 32:1; 사 1:2 등).

(1-2)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건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와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며 이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  
덕들을 4-5절까지 하나둘씩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  
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터전과 환경, 국가적인 제도를 만들어준 지  
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의 토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  
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은혜를 주셨으  
며,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모세를 주셨다는 말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으면서  
그저 섬김을 강요하는, 그들의 불평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었  
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가르친 제사장이  
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접 예배를 드리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  
게 나아가도록 가르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을 보내셨다  
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친히 안내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한편 미리암은 여자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찬양이 출애굽기에 수록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를 견제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싯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치려던 발락과 발람과 같은 이방의 계락을 친히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의 싯딤에서 서쪽 길갈까지 진행하는 4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세상 일에 관여하거나 직접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이신론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살아갈 통전적인 삶의 기반을 허용하시며,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세심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기

반을 주시며,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은총은 마르지 않는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함에도,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흥 없는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옆을 지나는 문제들로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다면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허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과 같은 막대한 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만아들을 제물로 바칠지 고민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재물과 자식조차 하나님께 내어놓으려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기록은 성경에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 중에서도 자행되는 일이었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신 18:9-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막대한 양의 제물과 인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율법주의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치성을 보이고, 대단한 희생을 해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중에도 있으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바른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홀히 여기셨듯이 다른 이들을 공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의 생명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선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기뻐하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선행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길을 모색하고, 선하게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할 힘과 용기 주시기를 빕니다.

#### 예루살렘 안의 갓가지 속임수(9-16)

이어지는 9-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고발하며 그에 대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재물에 눈이 먼 이스라엘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율법에는 금지된 속임수를 써서 재물을 쌓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저울을 속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10-11)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는 비단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에게도 널리 퍼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행위  
는 거짓 행위가 있다는 것에서 9계명을 어김과 동시에, 남의 것  
을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므로 10계명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이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불법이 횡행  
하게 된 원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처음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 언약에서  
의 하나님의 영광을 피부로 체험하고 살았더라면, 불법을 자행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에서만 신실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아  
니라 일상 가운데서, 매사에 신실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꽤 준수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  
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먹고사는 문제에 이르  
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 보게 만드는 일들  
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  
는 일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금융기법들이 개발되면서 이 일이 옳은 일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 부나방처럼 뛰어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도 바른 가치 기준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처럼 속임수를 자행했음에도 정작 그들의 삶은 그리 윤택해지지 못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14-15)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병들게 했고, 죄 때문에 황폐하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만,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에 복무하며 살아간다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언약의 저주를 자취하게 된 원인은 아합의 삶을 모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앙을 적극 수입하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악한 일을 했지만, 삶 속에서 행한 대표적인 악한 일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온 이스라엘에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본받아 똑같은 짓을 일삼은 셈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불의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과 경제활동을 이어가더라도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모든 환경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감수성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종교적인 열심과 희생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롭게 행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요청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당장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바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으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6-7절)
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8절)
3.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은 과연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16절)
4. 저울을 속여 부자가 되려고 하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15절)

## 나는 여호와를 우리리보며

미가 7:1-20

1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  
다 2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  
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  
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  
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5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  
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  
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  
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  
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  
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  
의를 보리로다 10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11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  
 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13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14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  
 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  
 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5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16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  
 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 다시 우  
 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 요기를 하시려고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에 다가가  
 셧습니다. 그런데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  
 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  
 라”(막 11:14)고 하셨습니다. 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형식적

인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질타였습니다.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눅 19). 왜 우셨을까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온갖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 불의한 이스라엘(1-6)

미가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1a) 재앙이로다

전후좌우 그 어디를 살펴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앗수르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나요?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있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3절). 그리고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신들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4절).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을 저

버리고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역시 이에 질세라 우상숭배하며 죄악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 관계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해를 가하는 관계로 변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 관계까지도,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5-6절).

미가 선지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만연하고 종교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무화과 즉,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절).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2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에는 이제 파수꾼들의 날, 형벌의 날, 즉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4절).

이에 미가 선지자는 절규합니다. “재앙이로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 아닌가요! 세계는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이리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대외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편싸움에 몰두하다 못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초법적인 존재인 양 착각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히 자처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부패와 정치의 부패는 결국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만 술이 아닙니다. 알코올을 1%만 함유해도 술입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그 정도쯤이야 눈감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자기 공동체만이 옳다고, 자기 진영만이 옳다고, 자기 정당만이 옳다고….

###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7-20)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불빛을 찾기 힘듭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미가 선지자는 절규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바로 주님

으로 말미암은 희망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고 선언합니다. 미가는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왕궁에서부터 가정까지 죄악이 만연한 남유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곧 처하게 될 암담한 현실 앞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좌절의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자, 그의 가슴에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미가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절망적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의 이름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미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a)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는 “이 세상 어디를 살펴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 1) 구원자 하나님

(7a)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속히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죄악의 온상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역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도구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절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사라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비질하는 여인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 2)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

(7b)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애굽에서 절망 중에 외치는 이스라엘의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미가는 멸망해가는 조국 유다를 향한 자신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국 유다를 위해 간구하는 미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묵묵부답에 시험 들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면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초기에 바로 들어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필수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주권과 영토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문제는 국민입니다. 씨족 또는 부족 정도의 규모로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늘에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를 이룰만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규모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민족의 규모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에 앞서 과연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고, 나를 위한 기도라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 3) 빛이신 하나님

(8b)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죄악이 만연한 어두움과 심판의 암울함이 가득한 유다 땅에 희망의 빛을 주실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미가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이 덮여있는 이 시대를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 4) 공의의 하나님

(9b)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방 열국은 자국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10절)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며 교만한 이방 열국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하여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10절), 파멸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13절). 미가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회는 공의가 실종된 사회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죄의 경중이 결정되는 사회는 절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하고 엄격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셨습니다(9절, 11-12절).

## 5) 인애하신 하나님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나하시나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18-19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19절)고 선포합니다. 인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을 바벨론 유수를 통해 신실하게 이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즉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을 믿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탄할 만큼 타락한 시기에 선지자로 택함받은 미가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듯이 한없이 우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쁜 일만 많이 있기를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내 코가 석 자나 빠져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힘드십니까? 힘들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시며,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인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미가의 “재앙이로다”라는 탄식이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다고 비판만 했지,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려고만 했지, 불우한 이웃을 위해 베푸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종교적 외식을 하는 우리로 인해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이 주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실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만하며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요, 진리의 빛이시며,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날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웃의 기쁨이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미가가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미가”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